중소벤처기업부 | 보도참고자료 |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중소기업·전통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황

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집중호우에 의한 중소기업·전통시장 피해 현황[7.17.(월) 09:00 기준]은 213개 업체로 광주, 충북, 충남, 전북지역 등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, 대부분 경미한 피해로 파악되고 있었다고 밝혔다.

< 중소기업·전통시장 집중호우 피해 현황 >

[단위 : 업체 수 기준]

구 분		기간: 6.24 ~ 7.17		비고
		신규 발생(1일)	누적 발생	
합계			**213**	
	중소기업	1	7	
	소상공인	-	203	
	전통시장	-	32	3개 시장

※ 출처: 국가재난관리시스템(NDMS) 신고 접수 및 지방청 점검(모니터링)

특히,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**미처 피해 신고를 못한 중소기업 등이 있을 수 있고**, 이번 집중호우가 이번주 **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** 향후 피해 규모와 범위는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.

아울러,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 및 13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산하단체와 같이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여 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비상재난담당관실	책임자	과 장	채왕식 (044-204-7390)
		담당자	사무관	정해진 (044-204-7391)
			주무관	안준기 (044-204-739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